부처님오신날 새겨듣는
틱낫한 스님 말씀

황제의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 드리겠습니다. 황제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황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황제에게, 세 질문의 답만 알면 어떤 일에도 헛갈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함께 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황제는 누구든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방을 써서 온 나라에 알리도록 했어요. 방을 본 많은 사람이 왕궁으로 가서 답하는데 저마다 내용이 달랐지요. 황제는 그 모든 대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날 밤을 생각한 끝에 황제는 산꼭대기에 사는 은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은자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황제는 그를 만나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결코 산을 떠나지 않으며,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자하고는 만나지도 않았고 다만 가난한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평범한 농부로 변장을 하고 시종들에게는 자기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가 은자를 만나고 내려올 때까지 산기슭에서 기다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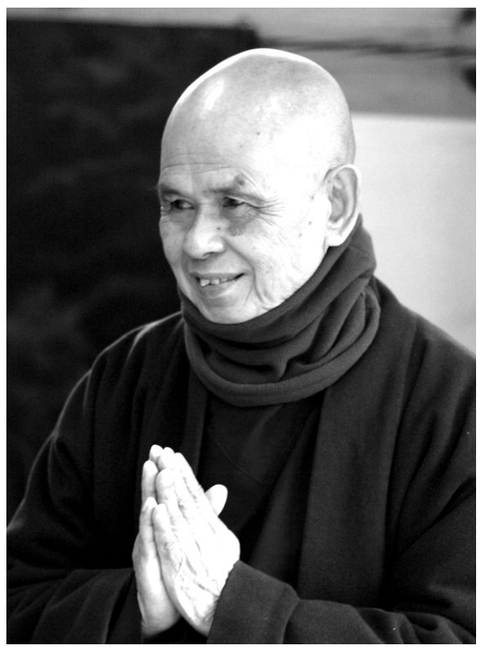
은자가 살고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황제는 오두막 앞에서 밭을 일구고 있는 은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낯선 나그네가 온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다음 계속 땅을 팠어요. 황제 눈에는 그 일이 나이든 은자에게 힘겨워 보였습니다. 삽질을 할 때마다 무척 무거운 듯 흙 한 삽을 들어 올렸거든요.

황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노인께 세 가지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지, 함께 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든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답을 들려주십시오."

은자는 귀 기울여 듣고 나서 다만 황제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삽질을 계속 했어요. 황제가 말했지요. "많이 지쳤군요.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자는 고맙다고 하면서 삽을 황제에게 넘겨주고 바닥에 앉아 쉬었습니다.

두 이랑을 파고 나서 황제는 삽질을 멈추고 은자에게 세 가지를 다시 물었어요. 은자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젠 당신이 좀 쉬시오, 내가 할 테니." 그러나 황제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어요. 이윽고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삽을 놓고 은자에게 말했지요. "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여기 왔습니다. 노인께서 대답해줄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은자가 머리를 들고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시오?" 황제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숲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 피 흐르는 배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비틀거리며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황제 앞까지 달려오더니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 했지요. 황제와 은자가 옷을 벗기자 아주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황제는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속옷을 벗어 싸매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여기'
"내 주변부터 행복하게 해줘야"
그 방법은 바로 '마음 챙김 수행'

그러나 금세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속옷을 물에 헹구어 다시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러기를 되풀이했어요.

이윽고 상처 입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더니 마실 물을 청했습니다. 황제는 개울로 달려가 깨끗한 물을 한 주전자 길어왔지요. 그러는 동안 해는 떨어지고 밤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은자가 황제와 함께 그 사람을 오두막 안으로 옮겨다가 자신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서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황제는 높은 산을 오른데다가 밭을 일구느라 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문간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황제가 눈 떴을 때는 해가 이미 동산 위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황제는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 하러 여기까지 왔는지를 깜빡 잊었습니다. 황제가 침상을 넘겨다보았을 때 상처 입은 사람도 황제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한동안 황제를 눈여겨보던 그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기에 용서해달라는 것이오?" 황제가 물었지요.

"폐하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폐하를 압니다. 저는 폐하의 원수입니다. 폐하께 복수를 하기로 맹세했지요. 지난번 전쟁 때 폐하께서 제 아우를 죽이고 제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은자를 만나러 홀로 산을 오르셨다는 말을 듣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폐하를 습격하여 죽이려고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폐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l 그래서 매복해 있던 곳을 떠나 폐하를 찾아 나섰다가 폐하를 만나는 대신 폐하의 시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상처를 입혔지요. 다행히 도망쳐서 이리로 왔는데, 여기서 폐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죽은 몸일 것입니다. 저는 폐하를 죽이려고 했는데 폐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살아난다면 남은 세월 폐하의 종이 되고 제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황제는 원수였던 사람과 그토록 쉽게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건 물론이요, 그의 재산도 모두 돌려줄 것이며, 자기 의사와 시종 들을 보내어 그가 완쾌할 때까지 돌봐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종들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라고 시킨 다음, 황제는 다시 은자를 보러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세 가지 질문을 은자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은자는 어제 갈아놓은 밭에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서서 황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질문에는 벌써 대답을 얻었잖소?"

"어떻게 말입니까?" 황제가 의아해서 물었지요.

"어제 당신이 늙은 나를 가엽게 여겨 밭가는 일을 늦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려가는 길에 그의 습격을 받았을 거요. 그러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겠지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바로 그때라는 걸 기억하시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지요. 뒤에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게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오. 그것만이 인생에서 추구할 일이지요."

우리는 사회봉사에 대해 말하고, 민중을 돌보고 인류를 돌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자주 잊곤 하지요. 그대가 만일 그대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나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아가 사회를 돌보겠다는 겁니까? 그대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평화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뿐입니까?

평화봉사,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 등 봉사라는 말은 참 거창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 학급 친구들, 동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 같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립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톨스토이는 성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보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톨스토이는 홀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것. 톨스토이가 제시한 원리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실천에 옮기려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길을 구하여 찾아내야 합니다.

〈이 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틱낫한 명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社說

부처님오신날에 다시 생각한다

한국불교, 삶의 현장에 있어야

5월 17일은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세상에 비춰야 하는 시기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노사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갑의 횡포'라는 사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계급과 인종, 성별을 떠나 모든 존재의 평등함을 설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다.

앞이 보이 않을 정도로 암울한 미래에서 한국불교는 연대와 협력의 매개체가 돼야 한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호미와 괭이를 잡고, 빈민과 노동자가 거리에 나앉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아이들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가정에서 크게 웃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생을 떠난 부처는 없으며 고통의 사바세계를 제도함이 바로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어쩌면 한국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나아갈 미래는 자승 스님의 봉축사에 담겨 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불교적 명제는 경쟁과 이기주의로 얼룩진 세상을 치유할 단초이다.

이제 부처님오신날이다. 인류의 큰 스승이 세상에 나투신 거룩한 날이다. 한국불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와 성찰을 가지길 바래본다.

어린이 포교는 불자의 의무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이 같은 고전적 명제는 한국불교에게도 그대로 통용되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을 찬찬히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불교계에서 어린이 포교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올라간다. 엄혹했던 시절, 선각자들은 밀려오는 서구 종교에 맞서 1923년 현재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에 '일요불교학교'를 개교했다. 이렇게 시작한 '일요불교학교'는 해방 전까지 전국 사찰 4천여 곳에 설치돼 어린이 포교에 힘썼다.

하지만 6.25동란을 거치면서 '일요불교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포교는 단절되지만 1960년대 중후반부터 몇몇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 조금씩 씨앗을 뿌려 나간다. 이런 거름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 전국 600여 사찰에 5~6만 명의 어린이가 참가할 정도로 붐을 이뤄졌다. 하지만 1990년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체 일로를 겪다가 최근에 다시 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정하고 있는 전법 중심도량이 111곳이며, 어린이 법회도 증가세다. 하지만 '어린이 포교는 위기'라는 인식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양적 인프라는 구축이 됐어도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일선 사찰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결과적으로 포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원력이 필요하다. 일선 전문가들이 어린이 포교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 당부했던 사안도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인식 전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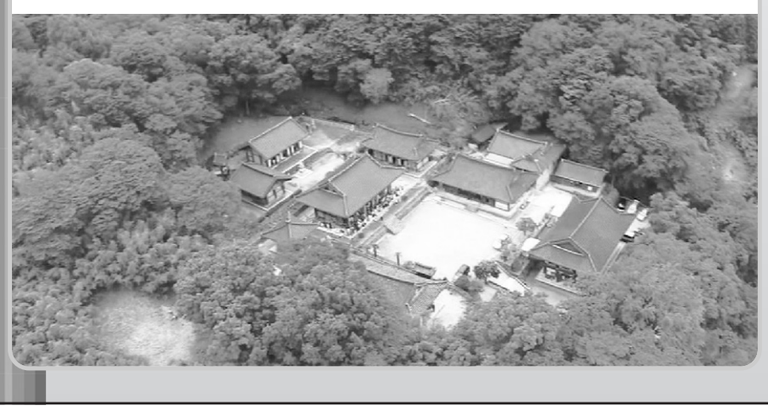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위해 다시 한번 제언드린다. 한국불교의 발전에 있어 필수 요소는 어린이 포교라는 것을. 어린이 불자가 늘어야 향후 10년 후 청소년, 대학생 불자가 늘고, 다시 10년 후 청장년 불자가 증가할 수 있다. 계층 포교의 시발점과 종착점이 어린이 포교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착하고 악함을 자세히 살피면 두려워하고 꺼려할 것 저절로 알게 되어 그것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된 이를 만나 그 어진 이를 따라 행하면 모든 바라는 바 잘 이루게 되어 복록은 갈수록 늘어난다.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죽림사
주지 법룡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산 1
전화 061)337-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거사
주지 혜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